

계엄 막아낸 야당 수장 ‘빛의 혁명’ 타고 대권 잡다



한호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침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투표로 종식” 호소...실용 이미지로 중도층 공략

이재명 대통령 승리 요인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개막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차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재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정권이 촉발한 12·3계엄과 내란에 따른 심판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해온 민심에 호응해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달라”고 호소한 간절함이 주효했다. 실용·민생 이미지를 집중부각하고 탈이념·탈진영 행보도 가속화하며 중도층을 적극 공략한 점도 표심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빛의혁명**=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빛의 혁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과거 군부정권의 계엄 트라우마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엔 빛의 혁명으로 심판했다. 내란 심판론은 선거 전부터 21대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내란 종식의 책임자로 자처하며 일찍이 대세를 굳혔다. 빛의혁명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자로 이재명을 선택했다.

◇**경험치 쌓인 두번째 대선**=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뒤, 재도전에 나서면서 첫 출마에 나선 다른 후보들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3년 전 대선에서의 패배 경험은 이번 대선에서 큰 도움이 됐다. TV토론이나 기자회견, 거리유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막힘이 없었고 명확했다. 20대 대선 때보다 더욱 거대해진 초대형 선거캠프를 구성해 치밀하고 꼼꼼한 선거 전략으로 대세를 굳혀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도 지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촘촘한 내용으로 짜여졌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다시 완벽하게 당권을 장악해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내 잡음 없이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2년 빠른 조기대선**=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조기대선은 운

명적인 선거라 할 수 있다. 사법리스크로 윤석열 정권의 내란 소요가 없었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빛의혁명으로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은 다시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듭났다.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급박하게 진행된 것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타 후보들의 준비 기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조기 대선의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면서 사실상 자멸했다.

◇**다지구도와 혁신당의 지지**=이번 대선은 원내 정당 3곳과 원외지만 전통 지지기반을 갖춘 정당(민주노동당) 1곳이 선거를 완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순조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끝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에도 힘이 실렸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1대 1 가상대결 시 모든 후보를 앞섰지만, 범보수간 단일화와 막판 보속 결집이 변수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위해 추진했던 ‘보수 박테트’론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 보수 지지층엔 실망감을 안긴 반면, 중도층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게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거야(巨野) 당 대표-제 1주자**=원내 1당의 대선 주자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국회의원 수 과반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당대표로, 각종 선거를 치러본 경험을 축적한 당원들이 힘을 보탬 수 있었다. 이재명 선대위 캠프가 선거기간 보여준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타 후보를 앞섰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하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선거 전략으로 유세에 나서면서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 계엄 정당을 물리친 제 1야당의 수장이라는 점도 국민적인 안정감에 보탬이 됐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풍찬노숙 함께한 7인회·원내 신명계·원의 경기-성남 라인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은 ‘변방의 장수’로 불렸다. 그의 비주류 인생에는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함께 했던 측근 그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출발이자 정치자신의 원천인 ‘7인회’를 기반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전당대회를 거치며 세를 불리고 정치 입지를 다졌다. 경기지사, 2022년 대선 후보, 국회의원, 연임 당 대표를 거치며 인적 기반을 확장했다. 측근 그룹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이들 그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했고, 강력한 원군이 됐다.

◇**7인회** =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한 ‘7인회’는 전통적 측근 그룹이다. 정성호·김영선·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이 멤버다. 2017년 ‘변방의 장수’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던 인물들로 신뢰 관계가 두텁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은 이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격으로 평소 고언을 하며 주요 정치적 판단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반대할 만큼 소신 발언을 하는 친명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이해관계에 뿌리를 둔 5선의 조정식 의원은 당내 최다선이자 정책통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당시에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근거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해식·김태선·조승래 의원 등도 복심으로 분류되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대표적 친명 주자이며 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정진욱(동남갑)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

◇**신(新)명계** = 지난 대선과 이 대표의 여의도 입성후 꾸려진 신진 그룹이다. 박찬대 의원은 신친명계 핵심이자 공인회계사 출신의 3선이다. 그는 대선 당시 경선 캠프 대변인을 시작으로

줄곧 이 대표의 곁을 지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 지지 속에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에 취임한 뒤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주요 국면에서 원내를 지휘하며 이 후보와 보조를 맞췄다. 이재명 당선자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대표 권한대행과 상임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 지난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지내며 핵심 참모로 자리 잡았다.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장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최근 ‘이재명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정청래·장경태·서영교 의원도 신명계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4선 의원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벌어질 때마다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했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대어 공세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재선의 김병기의 원내 신친명계 핵심으로 언급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원의그룹** ‘성남-경기라인’ =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성남-경기라인’ 참모 그룹이다.

이 후보의 정책 브레인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전 경기연구원장)은 총괄본부장과 선대위 정책본부장직을 맡아 공약 기획과 정책 설계 중심에서 있다.

먼저 김남준·김현지 보좌관은 이 대표와 오랜 인연을 이어와 의원회관 보좌진까지 합류한 측근이다. 김남준 보좌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언론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지난 대선·지선에서도 이 대표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성남시민모임 시절부터 20년 넘게 함께한 김현지 보좌관도 현재 캠프 실무를 맡아 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밖에서는 ‘성남파’의 핵심이자 이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외곽에서 이 대표를 돕고 있다. 경기도정 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불린 김용 전 대선 캠프 총괄본부부장도 전대 기간 이 대표를 수행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